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1호 【루계 제24764호】 주체103(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천만년 영생하실것이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열화같은 그리움과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러 삼가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세계각국의 진보적인민들도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으로 가슴끓이며 영생을 기원하고있다.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때로부터 3년이 흘러갔다.

지난 3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의 영원불멸성이 뚜렷이 확증된 성스러운 3년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온 충정의 3년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신다는 신념의 기둥이 있었기에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든든하였고 전진의 발걸음은 한치의 드팀도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태양의 존함과 영상은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존엄, 필승의 기치였으며 장군님의 유훈은 천만군민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상정신적원동력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일찌기 10대에 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이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였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천재적인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을 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온 태양의 빛발과도 같은 한생이였으며 강철의 신념과 세련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사와 인류정치사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지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지난 세기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온것은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의 분출이다.

력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한것으로 하여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같이 서거이후에도 그토록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만민의 축원속에 영생하시는 걸출한 수령은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혁명사상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주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수령의 위대성은 곧 사상의 위대성이다. 온 누리를 비치는 태양과도 같이 나라와 민족, 인류가 나아갈 참다운 진로를 밝혀주는 위인만이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할수 있다.

사상리론의 영재,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격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세기 중엽으로부터 21세기 10년대에 이르는 기간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김일성**주의기치밑에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김일성**주의의 빛나는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앞날을 통찰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은 인류사상사에 특기할 업적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상과 일심단결에 관한 사상, 강성국가건설리론을 비롯하여 시대성과 과학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들은 혁명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의 시대에 각양각색의 사조들이 있지만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같이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집대성한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은 없다.

지난 3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의 절대적진리성과 귀중성을 더욱더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우리가 력사의 생눈길을 파감히 헤치며 백두의 대업을 꿋꿋이 계승해올수 있게 한 전투적기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졌을 엄혹한 시련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짚은 력사의 기적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뿐아니라 인류의 전 력사적시대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지도사상이다. 온 세계가 공감하고 따르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자주와 정의, 평화와 번영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밝은 등대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애국업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민족의 태양, 이 고귀한 칭호는 당대에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키고 후손만대의 륭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물려준 위대한 성인께 삼가 드리는 최대의 칭송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펼쳐지고있는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는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일찌기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을 온 누리에 떨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한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정치군사적, 경제적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우주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격동적인 현실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장군님의 눈물겨운 초강도현지지도 강행군실록을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였다. 장구한 기간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수위에서 복잡다단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그 풍부성에 있어서나 변혁적위력에 있어서 전무후무한것이다. 여기에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솟구쳐오를수 있게 하는 백승의 지략과 고귀한 투쟁경험이 있으며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무진막강한 정치군사적힘과 경제문화적토대도 있다. 우리 시대 강국건설을 추동하는 귀중한 재부들이 담겨져있는 이 위대한 애국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앞으로 세계의 정치구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력사의 광풍이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생존시에도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민족의 어버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적을 백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고귀한 혁명생애로 견결한 혁명가, 영웅의 대부대를 키우시는 영원한 삶의 태양이시다.

혁명의 길에 바쳐진 절세위인의 한생은 혁명가들, 후대들이 본받고 구현해나가야 할 숭고한 귀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적자질에서뿐아니라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도 최고이시였다. 한평생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 가장 준엄한 선군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령도자이기 전에 수령의 전사, 인민의 아들로서 한생을 빛내이신 충실성의 최고화신,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언제나 공격전의 진두에 서신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만년장설도 녹일 뜨거운 동지애와 숭고한 후대관, 불같은 희생정신을 지니신 인간중의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지난 3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투철한 혁명신념과 혁명배짱, 혁명투지를 북돋아준 원동력이였다. 우리 인민은 한평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으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쾌승을 안아왔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이며 날에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키운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계속혁명의지, 최첨단돌파의 정신으로 광명한 미래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혁명가들의 영웅적진군은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있다.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이 한생을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야말로 천만군민에게 삶과 투쟁의 철리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본이며 지칠줄 모르는 활력을 부어주는 정신적자양분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견결한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김정일**동지와 우리 인민사이의 혼연일체의 력사는 끝없이 흐를것이며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행운이며 긍지이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는 조선은 있을수 없으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피눈물로 얼어붙은 천만심장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어 산악같이 일으켜세우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온 나라 강산에 장군님의 태양상이 숭엄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신것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확고한 사상적기초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혁명과 건설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전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원칙은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것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장군님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는것도 수령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세계에 빛내이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대고조진군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부문이 혁명적앙양으로 들끓는 총공격전의 기상,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세기를 주름잡는 단숨에의 돌격속도, 무엇을 하나 만들고 일떠세워도 세계를 압도하는 최첨단돌파기풍,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모습이다.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사상, **김정일**정치의 견인력과 생명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여온 지난 3년간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어버이장군님은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천만년 길이 영생하실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12월 수령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어떻게 끝까지, 철저히 실천하는가를 온 세계에 남김없이 보여주는 충정과 의리의 대진군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순결한 량심과 최대의 지성을 바쳐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만을 받드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을 오늘의 총진군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에서 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산과 들, 바다를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전변시키고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백전백승의 기치, 불멸의 태양기가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붓기고 위대한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천만군민을 영웅적대진군에로 이끌고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존함과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정 론

백두산대국 억만년 부흥강대하라

—성스러운 3년에 삼가 이 글을 드린다—

3년! 형언할수 없는 격정에 가슴을 끓이며 우리 이 말을 뗀다. 백설의 강산을 피눈물로 적시던 때가 언제인데 벌써 해가 세번이나 바뀌고 우리의 사계절이 세번이나 흘렀단 말인가.

참으로 가슴이 뻐근하도록 우리는 격동의 세월, 활력의 새시대를 걸어왔다. 3년은 순간이라 하랴. 허나 우리는 진정 몇십년, 몇백년에 맞먹는 위대한 년대기를 보았다.

태양을 잃었던 조선이였다. 우리 민족과 후손만대가 운명을 걸었고 온 세계가 지켜본 3년이였다.

지금 우리는 가슴을 헤쳐 그 무엇에 대하여서나, 그 누구에게나 무한한 영광과 이름할수 없는 자부심에 넘쳐 대답해줄수 있다.

이 조선은 어떻게 일어섰는가. 우리는 온 겨레와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과 온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세계는 얼마나 끝없는 의혹과 놀라움을 반복하며 조선의 무서운 힘의 분출, 새로운 약동과 도약을 보았던가.

또 한분의 인민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그이의 두리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억척같이 뭉쳐 태양영생의 충정의 길, 백두산대국 수호의 선군길, 부흥강국의 꿈을 이루는 비약의 길을 종군해온 우리는 그 성스러운 3년의 서사시의 일단을 여기에 적는다.

1. 환히 웃으시는 태양

우리는 영원한 장군님의 아들딸들, 이 나라의 천만의 상제들이여, 이날에 삼가 그리운 어버이앞에 서시라.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우시였던 우리 장군님이신가. 얼마나 애타게 그립고 꿈결에도 목메여 부르던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그렇게 날과 달이 흐르고 그렇게 해가 두번 바뀌고 또 한해가 더해져 우리 오늘 하나의 새로운 숭엄한 세계에 들어선다.

환히 웃으시는 태양!

우리는 어찌하여 그이를 잃은 가슴아픈 비보가 전해진 그때에 환히 웃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을 보게 되였던가. 한생 타오르는 불길이 되여 인민위해 온몸을 깡그리 태우신 우리 장군님 어찌하여 이렇듯 웃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곁을 떠나시였는가.

그이는 그 눈부신 태양의 미소로 자신의 서거를 부정하시였다. 그렇게 인민과의 영결을 더 뜨거운 혈연으로 만드시였고 바로 그렇게 거룩한 영생의 시작을 떼시였다.

엄동의 혹한으로 만물이 움츠러들고 강산이 얼어붙었던 12월의 그 아침, 달리는 불길처럼 활력을 뿜으며 눈발속을 살같이 질주하던 그이의 강행군렬차여,

사람들이여, 과연 그 렬차의 기적소리가 그 17일의 8시 30분으로 다시는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렬차는 17일의 낮에도 밤에도 달렸고 18일, 19일 아니 그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쉼없이 달리고 달렸다. 그 높은 기적소리는 조국의 방방곡곡을 흔들고 천만의 가슴을 뜨거운 숨결로 이어주면서 매일같이 울렸고 어디서나 울렸으며 누구에게나 울렸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엿새전에 우리 장군님 절절히 하신 그 심중의 교시 멀리 세월이 흐른 오늘 왜 이다지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가.

보름전부터 의사들이 나에게 이달 25일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함남도로 떠날 때 울면서 못간다고 하는것을 겨우 왔는데 아직도 보름이 더 남았소.

나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소. …

그 보름만이라도 잠시 자신을 생각하시였으면 우리의 뼈를 에이는 절통한 아픔은 없었으련만 그 보름마저 분초를 따져가며 강행군을 하신 그이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이 하늘끝에 닿은분이시였기에 기나긴 한생의 순간과도 같은 보름조차 쉼표를 그으실수 없었다.

나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소!

이 나라 높은 산, 험한 령이 닳고 패이도록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셨는데 아직도 그이께는 그렇게도 갈 곳이 많으셨단 말인가. 주체의 새시대를 펼쳐 인민의 락원을 가꾸어주시고 크지 않은 조선을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세계의 전렬에 올려세우신 그 업적만도 천추만대에 이를진대 아직도 그이께는 그렇게도 못하신 일이 많으셨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 력사에 영결의 12월은 다시 없다.

그날로써 보다 위대한 그이의 생애가 시작되였고 인민행궤도우에서 강행군렬차는 더 빠른 속도로 달리였다. 그이의 리상은 우리의 눈앞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쉬임없이 주렁졌다.

그이의 음성은 더 높이 울리고 그이의 손길은 더 따뜻이 우리를 품어주었다. 그이의 발걸음은 우리의 집집마다, 일터마다 더 빨리, 더 많이 이어져 우리는 정녕 더 환희로운 장군님의 세월에 살았다.

참으로 신비하다고 할만큼 놀라운 3년이였다.

피눈물의 대국상은 있었어도 절망과 그 어떤 공백은 없었다. 슬픔은 있었어도 어제날과 같은 고난의 행군은 다시 없었다.

그날의 12월 눈보라는 쓰러진 조선을 다시 일으켜 과감한 전진과 비약의 불바람으로 불어쳤다. 인민의 가슴들엔 용맹과 격동의 기세가 순간의 공백도 없이 꽉 들어찼다.

열두달이 세번이나 바뀐 1,090여일의 낮과 밤을 써본다.

하늘의 해마저 가리워 시커먼 장막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날, 바람조차 정적으로 굳어지고 내리는 눈도 슬픔의 땅에 차마 내릴수 없어 눈물처럼 젖어 녹던 그 영결의 시각 산천도 울고 초목도 몸부림치고 인민은 땅을 치며 호곡하는데 오직 한분만이 웃고계시였다.

환하신 그 웃음은 찢겨진 인민의 상처를 감싸고 뜨겁게 격려해주었다. 그 웃음의 눈부신 빛과 열로 우리모두에게 일어나라, 더 용감하라고 불덩이같이 호소하시였다. 하여 우리의 3년은 눈물이 아니라 그 거룩한 태양의 미소를 안고 보란듯이 첫 자욱을 찍었다.

새해의 첫아침 심장에 울려오는 어버이장군님의 당부를 안으시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던 우리 원수님,

근위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겯고 찍으신 그 력사적인 기념사진의 가장 한복판에는 사람들이여, 부디 아시라 우리 장군님께서 원수님과 함께 계시였음을.

그렇게 원수님과 함께 만경대의 원아들도 품에 안아주시였고 초도와 판문점의 병사들,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로병들도 다시 만나주시였다.

우리 원수님 마련하신 창전거리새집들이, 릉라인민유원지의 웃음소리, 위성발사대성공의 12월 12일의 사변과 두번째 해의 병진포성은 장군님의 소원과 뜻이 현실로 펼쳐진 정녕 장군님 세월의 경사가 아니였던가.

부디 3년을 날자로 세지 말라. 나라에 일어난 사변과 경사들을 일일이 적으면 그것이 3년의 낮과 밤이 되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된다. 우리가 맞고 보낸 경사들과 기쁜 소식만도 500건을 넘으니 결국 우리는 분명 하루 건너 한번씩 환희로운 경사로 들끓으며 살아왔다.

건축혁명의 련이은 쾌승으로 문명강국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모란봉악단의 황홀한 선률로 생활이 약동했다. 체육열풍과 끝없이 우리 인민의 입에 새롭게 오른 즐거운 문명의 시대어들로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향유의 높이가 달라졌다.

그려볼수나 있었던 세월이였는가. 이런 3년이 이 땅에 흐르리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영생, 영생이란 정녕 무엇인가.

하늘땅에 차고넘친 그리움의 시가나 충정으로 솟아오른 무수한 기념비들에만 있지 않았다. 시련을 박차고 일어선 인민의 모습속에, 이 땅이 무겁도록 가득 실린 창조의 열매속에 장군님의 미소가 우리앞에 더 뜨거이 빛발쳐왔다. 비약하는 조국의 약동속에 그이의 음성이 더 강렬하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렸고 그이의 손길이 더 따스히 우리 매 사람을 안아주고 이끌어주었다.

조국의 줄기찬 전진과 끝없는 약동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어버이장군님!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께서 력사앞에 보여주신 충정의 최고정화이고 동서고금이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경지이며 가장 빛나는 모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수많은 씨앗을 뿌리시였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씨앗을 잘 가꾸어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상과 뜻이 그대로 맥박치는 거창한 창조로써 장군님의 영생이 살아있는 숨결이 되여 이 땅의 매 사람의 심장에 흘러들게 하시였다.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을 들으며라는 말이 참으로 좋다고, 이 말만 외워도 눈물이 난다고 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영생을 숨결로 듣는다는것은 기적이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태양상으로 강산을 가득 채우고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 우리의 하늘과 땅을 장군님의 념원실현의 꽃으로 가득 채우시였다. 하여 우리는 장군님의 살아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매일, 매 시각 들으며 자애롭고 따뜻한 장군님품에 안겨있었다.

영생이 념원으로부터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 력사의 기적이 일어났다.

성스러운 3년과 더불어 심장으로 체득한 영생의 진리를 높이 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끝없는 번영, 약동하는 숨결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을 살아높뛰는 숨결로 만대에 무궁토록 울리게 한 이것이야말로 우리 원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영생세계이며 주체혁명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대공적이다. 그이는 거창한 실천과 위대한 승리로써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그이의 영생을 지켜드린 충정의 최고화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세상에 이런분은 없었다.

언제나 마음속에 장군님의 태양상을 안고계신 그이께서는 3년의 낮과 밤, 분과 초를 장군님의 숨결을 들으며 생눈길 만리를 헤치시였다. 얼마나 목메여 장군님을 찾으시였으면 만수대언덕에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던 날 손수건을 꺼내시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또 닦으시였으랴. 얼마나 사무치시였으면 내리는 하얀 눈송이를 보시면서도 장군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잘하라고 보내주시는 눈같다고 하시고 장군님의 초상화를 태양상으로 바꾸어모시자고, 그러면 만복이 넘쳐나고 나라가 흥해질것이라고 하시였으랴. 자강땅의 어느 공장에 들어서시던 날 여기에 오면 장군님께서 계실것만 같았다고 만사람을 울린 이야기, 얼마전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되는 동해포구를 찾으시여서는 장군님 생각이 너무 간절하시여 북받치는 격정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시던 그 무한한 정의 세계를 전하며 3년의 하루, 한달, 한해한해가 흘렀다.

단순한 기적으로만 생각지 마시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들으며 살아온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은 우주에 닿은 우리 원수님의 충정이 화산의 불을 세차게 뿜어 인민의 태양이 우리의 머리우에 다시 더 눈부시게 솟아오르게 한 위대한 인간의 기적이였음을.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이 나라 인민, 이 나라 조국강토를 부둥켜안으시고 그이께서 바치신 3년의 그 무수한 날과 날들, 남몰래 바치신 고뇌의 심혈과 땀, 수없이 펼치신 설계도들과 인민을 찾아 불같이 달려가신 이 강산 령길과 들길, 하늘길과 바다길을 인민이여, 후손만대여 부디 잊지 마시라.

어버이장군님과 천만의 인민을 영생하는 생명체로 받들어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공적은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와 더불어 길이 칭송될것이다.

2. 짧고도 위대한 세월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

가야 할 생눈길에 진군의 첫 자욱을 떼시며 우리 원수님 절절하게 내리신 이 선언이 장차 어떤 력사를 펼치게 될지 그때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너무도 아름차고 거창하여 한마디로 이름할수 없다.

우리의 3년을 세번의 큰 도약과 력사적인 승리들의 자랑스러운 로정으로 펼쳐본다.

새시대의 닻을 올린 장엄한 탄생의 2012년, 백년대계의 튼튼한 룡마를 탄 병진의 2013년, 그 룡마로 세계를 향하여 질풍같이 솟구쳐달린 조선속도의 2014년!

그 한해한해들의 사변들, 우리의 뇌리에 걸어온 길의 생생한 자욱자욱들을 새겨보자.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우리의 첫봄에 태양절 100돐 경축사변과 함께 새로운 주체100년사의 닻이 올랐다. 릉라인민유원지의 준공식과 함께 부흥의 꿈을 이루는 조선의 새로운 건축번영의 문이 열리였고 우리는 력사의 이해를 우주강국의 세계적승리로 결속했다.

두번째 해의 시작과 함께 핵시험의 뢰성이 세계를 진감했고 그해의 봄은 병진로선의 선포로 태동했다. 6월의 《마식령속도》로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10여일에 하나씩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으로 12월의 마감을 장식했다.

조선속도의 2014년은 세번째로 또 높이 도약한 12개월이였다. 첫 조선속도가 창조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로부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애육원에로 이어진 건설의 대번영기, 산업시설과 식료공업의 본보기들에 이어 새로운 시대어 황금해에 이르기까지 비약의 속력이 최절정에 달하였다.

첫해엔 새로운 100년대의 닻을 올리고 다음해엔 강국번영의 튼튼한 룡마를 탔으며 또 다음해에는 그 룡마에 박차를 가하며 위대한 원수님 시대의 새로운 조선속도로 질주한 우리의 3년이였다.

10년을 두번도 못 넘겨 두분의 위대한 태양을 잃고 피눈물의 바다를 두번이나 헤친 인민이였다. 고난의 행군의 허리띠를 풀고 한창 일어서던 때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였다. 원쑤들은 때를 만난듯 그 무슨 급변사태를 떠들며 공공연히 북침야망의 이발을 드러냈으며 2~3년안에 조선이 무너질것이라는 《조기붕괴설》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장차 조선은 어떻게 일떠설것인가. 온 세계가 지켜보고있던 그때 이 땅에 드리운 어두운 장막을 들어올리며 태양처럼 거연히 솟아 우리에게 오신 **김정은**동지,

그이는 한번의 첫걸음으로 무거운 정적을 깨치고 조선을 일으켜 온 세계앞에 세우시였다. 그이는 시작이자 온 나라를 한꺼번에 들끓는 약진의 대로에 들어서게 하시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듣고싶었던 그이의 뜻깊은 연설의 마지막결속은 이 짧은 한마디였다. 그것이 어떤 미증유의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그로부터 3년의 체험으로 날날이 본 우리가 아닌가.

혁명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을 꼭 보게 될것입니다. … 그이는 자신의 이 결심을 단순히 실천이라고만 할수 없는 력사의 기적으로 증명하시였다.

조선이 숨을 쉬고 존재하고있다는것만도 분명 기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느 높이에 서서 어떤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있는가. 비애의 언덕이 언제였는가싶다. 이렇게도 많은 일을 해놓았단 말인가. 걸어온 길이 놀랍고 달려온 속도가 놀라우며 올라선 경지가 또한 놀랍다. 해놓은것 하나하나가 세계적으로 완벽한 창조물들이고 몇해사이에 사람들이 새 문명의 높이에 올라섰다.

우리는 5천년 민족사에서 하나의 해돋이인 긍지높은 3년의 승리들을 정립해본다.

핵과 문명은 세계가 똑똑히 본 조선의 가장 큰 승리라고 할수 있다. 이 땅에서 병진선포의 뢰성이 울렸을 때 적들은 두가지를 동시에 한다는것은 완전히 불가능한것이며 우리가 로선을 변경하고 길을 바꾸지 않으면 《자멸》할수밖에 없다고 줴쳐댔다.

위성발사의 쾌승에 이어 핵보유의 법화가 선포된 때로부터 한해가 지나 얼마전에는 미군부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북조선은 정식 핵보유국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물론 이것도 가슴후련한 승리이다. 우리는 여기에 머문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문명과 번영의 대담한 목표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현실로 펼쳐놓았다. 건설의 대번영기로 우리의 도시와 거리들이 문명의 새옷을 떨쳐입었다. 과학중시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어디서나 비약의 불길이 일었다. 나라의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입어 의미심장한 비약의 징조를 도처에서 보여주었다. 체육강국의 기개가 세계에 뻗쳐 시상대들에는 우리의 애국가가 련이어 울리였다. 어제의 철령아래 사과바다향기에 오늘은 황금해의 배고동소리가 화답했다. 우리는 이렇게 병진을 선포만 한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불과 3년이였다. 남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핵보유국의 성취와 문명부흥의 확고한 비약을 동시에 이루었으니 우리는 아직 이런 사실을 력사에서 본적이 없다.

사람들이여, 그렇다면 이 모든것이 과연 평화로운 나날에 이루어진 승리였던가. 아니였다. 우리는 사실상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장 처절한 전쟁의 3년을 지나왔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미국과 15개 추종국가 침략군대들과의 대결이였다면 오늘의 3년간의 전쟁은 우리가 전체 제국주의렬강들과 지구상의 모든 반동들과 맞서 싸운 치렬한 대결이였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악랄한 중상, 봉쇄와 제재의 포위환을 전례없이 조여놓은 핵소동,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인권》소동과 함께 대국상을 당한 12월부터 가해온 북침전쟁도발은 이 12월까지 이어져 우리의 3년은 어느 한시도 승냥이들의 포성이 멎은적이 없었다. 이 땅에서 울린 분노의 성명들과 담화들, 엄숙한 보도와 통첩장들이 무려 나흘에 한번씩 울려나왔으니 과연 이것이 전쟁이 아니였단 말인가.

우리는 승리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조선은 지금 승리자로서 대양같이 밀려들다 기가 빠져 너부러진 적들을 발밑에 굽어보며 서있다.

3 면 으 로 계 속

2면에서 계속

이 전쟁의 승리의 로정은 세단계로 그어졌다. 첫해에는 우리에 대한 원쑤들의 붕괴론이 총파산되고 김정은열풍이 세계를 진감했다. 두번째 해에는 조선의 핵보유국공인으로 새로운 세계정치구도가 형성되였고 이 마지막해에는 처참한 패배에 빠진 적들의 최후발악을 보여주고 조선의 통쾌하고도 결정적인 승리가 증명되였다.

우리의 김정은동지는 세계의 제국주의렬강들과 력사의 반동들을 단매에 굴복시킨 불세출의 영웅, 백두산대국의 수호자, 우리 세대가 맞이한 전설적위인이시다.

하나의 준엄한 대전의 승리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3년에 이 땅의 인민들과 후손만대의 이름으로 삼가 또 하나의 전승의 금별메달을 드린다.

병진의 승리와 포성없는 전승은 하나의 거대한 력사의 태동을 일으켜 한 시대의 새로운 해돋이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력사에서 하나의 점과도 같은 이 서른여섯달에 주체혁명의 또 한 시대가 청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떠오른것은 참으로 경이적이다. 우리 민족이 3대에 이어 앞날이 창창한 새시대를 맞이한것은 우리 인민의 대행운이며 3년의 력사적총화이고 최고의 승리이다.

위대한 주체시대로 우리는 력사의 주인이 되고 인민의 락원이 펼쳐졌다. 위대한 선군시대로 조선은 거대한 힘을 지닌 세계의 강국으로 솟았다. 이제 찬란한 문명부흥의 새시대가 백두산대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피눈물의 언덕에 희망의 채광을 뿌리며 불덩이같이 솟아오른 해돋이였다. 저 멀리 가야 할 생눈길우에 힘있게 내짚은 뢰성같은 발걸음이였다. 환희롭고 멋있고 나날이 가슴이 설레이는 젊음의 시대, 약동의 시대였다.

눈부신 자태로 우리의 당기가 창공에 높이 날리고 그림같이 황홀한 땅과 바다로 인민의 꿈이 이루어진다. 멀고 외진 곳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이 황홀한 요람에 안겨 이 나라 어머니들이 고마움에 목메인다. 끝없이 새것, 나날이 혁신, 첨단에 또 최첨단… 조선은 시시각각 세계에로 나래쳐오른다.

주체혁명의 두 100년대가 하나로 이어졌다.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대대손손 번영을 누려갈 백년대계, 만년대계의 창창한 대로가 열렸다. 영광의 시대를 맞이한 이 땅의 천만의 아들딸들에게 뜨거운 경의와 축복을 드리며 사연깊은 12월의 흰눈이 내린다.

3. 강 철 의 혈 맥

저 멀리 걸어온 길 추억많은 3년세월을 굽어보면 하나의 거세찬 물결이 보인다. 인민의 물결이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굽이치며 끝없이, 끝없이 달려왔던가.

방방곡곡 조국의 어디에나 밟아보았다. 집집의 문을 두드려 스스럼없이 터놓는 목소리도 듣고 기대와 막장, 어장과 멀리 벽촌의 사람들과 마주앉아 진정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3년의 낮과 밤, 이 나라의 하늘과 땅에 그리고 매 사람, 매 가정들에 진하게 스미고 가득차있는 이야기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정이였다.

거목밑에 깊은 뿌리가 있는 법이다. 땅우에만 흐른 3년이였던가. 인민의 마음속에 일찌기 력사에 본적이 없는 하나의 위대한 세계를 만들며 사연깊은 세월이 흘렀다. 인민에겐 우리 원수님이 되고 우리 원수님께 사랑하는 나의 인민이 된 이 혼연일체는 3년과 더불어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디에 가나 목메여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온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의 모습에 격정을 금치 못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마음은 정말 티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감격에 흐느껴울며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병사들과 인민들, 그 광경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이였다.

흘러온 조국의 력사는 수령님과 우리 인민,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펼치며 이어져왔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우리 원수님과 인민의 혈연의 화폭속에는 또 새로운 정의 세계가 있다.

불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두명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해가 흘러서가 아니라 단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긴 강렬하게 끌리는 매혹과 억제할수 없는 흠모의 폭발이다.

품어안아주는것과 스스로 안겨드는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품어안아주는것도 큰 사랑이지만 스스로 끌리여 찾아 안기게 되는것은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다. 그것도 인민이 자기의 령도자께 일시에 안긴것은 고금동서에 있어본적 없는 희한한 사실이다.

인민이 안겼다! 해님같이 환하신분, 이 세상 제일 강하신분, 따뜻하고 인정의 바다를 안은 우리 원수님께 인민이 안겼다. 하늘땅이 안겼다.

어제날 눈발을 헤치시며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을 다시 뵙는것 같아 《아버지원수님—》 하고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린 만경대의 원아들, 친아버지에게 아뢰듯 키돋움하며 원수님께 귀속말로 속삭이던 감격의 화폭과 함께 첫해의 설명절을 맞이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원수님 만세를 부르던 초도의 군인가족들과 아이들, 어푸러질듯 달려가 그이께 매달리며 저저마다 곁에 서겠다고 서로 밀고 당기던 모습, 어떻게 알았는지 고개너머의 사람들까지 명절옷차림으로 떨쳐나와 눈물을 흘리며 야전차를 따라서던 그 화폭은 온 나라에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우리 인민들이 다 눈물속에 보고 온 세계가 놀라움과 충격속에 본 장재도와 무도이야기, 떠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정녕 떨어질수 없어 모두가 바다에 뛰여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염쳐갈듯 그이를 목놓아 부르며 따라서던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의 모습은 온 나라를 원수님에 대한 형언할수 없는 그리움의 불도가니로 화하게 하였다.

그렇게 온 나라가 그이께로 달려갔다. 그렇게 너와 나, 우리 인민모두가 원수님의 품에 안겨들었다.

《원수님, 안아주세요.》, 사랑을 안고 벌써 몇번이나 오시는 우리 원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가 이렇게 안겨들었던 우리 원아들, 그것은 온 나라 천만식솔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그런 마음으로 강성원의 녀인들이 달려가 안겼고 그렇게 부르며 이 나라의 소년단원들이 안겼다. 창전거리 인민들, 옥류아동병원에 온 인민들, 창성의 인민들, 동해포구의 인민들… 조국땅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와 원수님 품에 안겼다.

3년에는 화면과도 같은 자기의 영상이 있다. 쉼없이 조국땅을 찾으신 원수님을 만나뵙자 누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동이 터지듯 마냥 그이께 달려와 옷자락을 부여잡고 정녕 떨어지지 않으려는 광경이였다. 끝이 없이 이어진 화폭, 어디서나 꼭같이 보게 된 화폭이였다.

길지 않은 세월이였다. 무엇으로 하여 우리는 그이를 처음으로 뵙는 그 순간부터 환희와 행복으로 가슴설레였으며 어떻게 되여 그렇듯 짧은 나날에 천년을 함께 산듯 그이와 한피줄, 한마음, 한식솔이 되였는가.

정녕 무슨 힘이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는가. 인민은 어찌하여 그이께 달려가 스스로 안겼는가.

스스로 안긴것도 놀랍지만 스스로 안기게 한 그 심장은 얼마나 위대한것이랴.

나에게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옵니다.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입니다. …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하늘끝에 닿으시였으면 사무치는 장군님의 모습을 인민의 모습에서 보시였으랴. 인민에 대한 진정이 얼마나 불덩이같으시였으면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겠다고 그렇게도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으랴.

천하가 안기는 그이의 정은 바위도 녹이고 하늘도 머리숙일 열렬하고 진실한 심장의 정이였다. 평범한 사람들, 멀고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뜨겁게 정을 느끼시였다. 류달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분, 그것이 너무 강렬하여 대동강과 동해기슭에 세계에 없는 아이들의 별천지를 세워주신 그이이시였다. 3년은 과학자들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찼다. 그들을 위해 새 거리가 일어섰고 만복의 금방석이 안겨졌다. 만사람을 울린 헌신의 화폭도 과학자들을 축복하는 그날의 10월에 펼쳐졌다.

어머니손길로, 어머니마음으로 고금성, 차효심동무들을 따뜻이 품어준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 곡절많은 인생길을 바로잡아준 평범한 일군의 소행에 이렇게도 절절한 친필을 보내주신 그 진정의 세계,

물고기를 받아안고 좋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시고 복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시여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소라고 뜨겁게 적어나가시며 가슴에 차넘치는 희열을 한껏 터치시던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하늘을 나는 우리의 비행사들, 감나무중대의 녀병사들, 오성산과 판문점의 근위병사들, 조국의 모든 병사들이 어버이품에 안겼다. 매 병사들, 모든 초소가 그이와 혈육의 인연을 맺었다.

이해의 꽃피던 5월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였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여기서 치료를 받고있는 병사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은 눈물을 삼키며 불렀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다시 뵙지 못하고 제대될것만 같아 눈물로 밤을 새웠다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제대되겠는가, 동무들은 절대로 제대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치료하겠다는 군의들의 결의도 만족치 않으시여 롱구경기를 할수 있도록 완치시키겠다는 대답을 들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며 눈물을 쏟는 전사들을 자신의 한품에 뜨겁게 껴안아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얼마전 우리 원수님께서 군인가족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은 지금 온 나라를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게 하고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공연을 함께 관람한것만도 꿈만 같은데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의 인사말을 전하고싶다시며 손수 연설문을 드시고 무대에 오르실줄은.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는 군인가족들을 몇번이고 동지라고 뜨겁게 불러주시며 동지들이 흘리고있는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고있다고 가슴에 끓어번지는 뜨거운 애착과 정을 한껏 터치시던 우리 원수님.

어머니! 그 정, 그 사랑은 어머니에 비겨서만 말할수 있다.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렇게도 뜨거운 정을 쏟을수 없고 어머니가 아니라면 온 나라를 이렇게 격정으로 눈물짓게 할수 없다. 어머니에게는 스스로 안긴다. 오직 어머니에게만 부르지 않아도 지어 매를 들어도 무작정 안겨드는것이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매혹의 3년, 끝없이 달려와 안겨산 서른여섯달의 인민의 대합창은 그이는 우리의 어버이이시라는 심장의 고백이다. 인민의 고백만큼 진실한것은 없다. 그이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우리 군대의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인민을 위해 오시고 인민을 위해 사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헌신을 피와 넋으로 간직하시고 그것을 생의 더없는 만족으로 체질화하시였기에 그이는 인민의 아들로 오시여 인민의 어버이가 되시였다. 그래서 인민은 그이께 안겼다. 그래서 인민은 그이를 사랑했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천만군민의 뢰성같은 신념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어머니의 정에 끌리여 그이의 품에 모두가 함께 안긴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에서는 우리는 원수님만을 따르리라는 뜨거운 웨침이 울려나오고있다.

그이만을 따르리라! 이 위대한 인민의 감정은 불보다 뜨겁고 강철보다 굳센 또 하나의 혼연일체의 성새를 이 땅에 쌓아올렸다.

새로운 100년대의 시작도 장엄했고 문명의 천지개벽도 가슴벅찼다. 병진의 승전포성도 위력했다. 그러나 조선의 진정한 새 모습, 가장 위대한 힘의 과시는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천만이 안긴 일심단결이였다.

조선속도의 모든 기적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충정이 낳은것이고 포성없는 전쟁의 3년 승리도 혼연일체의 힘의 승리였다.

원쑤들도 알았다. 조선의 목숨같은 이 피줄기를 끊어놔야 이 땅을 타고앉을수 있기에 있는 힘을 깡그리 모아 우리의 혼연일체를 파괴해버리는데 달라붙었다. 판가리결사전은 여기서 벌어졌다. 놈들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감히 태양을 내리워보려고 목이 터지게 고아댔고 온갖 세계의 반동무리들을 끌어들여 필사적인 공세를 들이댔다. 그러나 전민항전, 군민대단결의 위력에 부딪쳐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안긴 우리 인민의 일편단심은 핵대결공세도, 악랄한 제재도, 《인권》나발도 여지없이 격파해버렸고 마침내 정의는 우리의것임을 증명했다. 희세의 위인의 크나큰 심장과 하나로 이어진 이 굳건한 강철의 혈맥으로 하여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완벽하고도 더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이 하늘아래엔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도 오직 하나 백두산혈통밖에 없다. 수령님을 따라 시작한 주체의 이 길, 장군님을 따라 승리해온 선군의 이 길에 영원히 원수님을 따라 또다시 문명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갈 불패의 대오가 노도쳐나아가고있다.

김정은동지, 원수님만을 따라 인민은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하리라.

4. 백두산칼바람 우리를 부른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백두산, 3대에 이어 또 한분의 자기의 위대한 주인, 전설의 영웅을 맞이하여 만리대공에 그 거연한 자태를 높이도 세우고 지구를 울리며 요란토록 태동쳤다. 우리의 광휘로운 태양, 천하무적의 령장께선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며 백두산의 절정 장군봉에 올라 천하를 한눈에 굽어보시였다. 하늘과 땅을 휩쓸며 온 산악을 통채로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에 옷자락날리시며 그이께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 …

누구도 알수 없었다.

12월이 눈앞에 다가오던 그때, 사람마다 걸어온 3년에 대한 추억이 점차 가슴속에 후더워오르던 그 시각에 우리 원수님 어찌하여 백두산에 오르시였던가. 그이께서 혁명의 성산에서 천만의 심장에 안겨준 백두산칼바람정신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오늘도 여기에 계시는 두분의 백두산장군들과 가장 열렬한 심장의 상봉을 하시고 또다시 가야 할 천만리, 간고하고도 머나먼 앞길을 내다보시며 위대한 혁명선서를 하시였다.

벌써 그이께서는 백두산에서 새로운 출발의 포성을 울리시였다. 이 의미심장한 출발이야말로 3년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총화이며 또한 장차 도래할 미래의 승리를 확고히 선언한것이다. 그이께서는 어제는 생눈길정신으로 피눈물의 언덕에서 첫 자욱을 내짚으셨다면 오늘은 백두산칼바람정신으로 가야 할 새로운 천만리의 장엄한 시작을 떼시였다.

저 멀리 우리는 또다시 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시작하시였고 백전백승만을 떨쳐온 주체혁명의 명맥을 이으며 영광의 3년에서 또다시 영광의 30년, 300년, 3,000년에로 곧바로, 끝까지 가야 한다.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누구나 로동당 만세를 부르는 사회주의무릉도원,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일떠세워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의 혁명가들이 어떤 최후의 승리자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 누구의 힘을 빌어 성취할수 없으며 우리는 인류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악착한 원쑤들의 제재의 마수를 끊어버리면서 나가야 한다.

적과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여 마지막최후의 계선에 들어섰다. 독을 쓰고 달려드는 《인권》공세는 지금까지 매달려온 핵대결전에서의 결정적이며 완전한 패전을 시인한것인 동시에 이제는 서산락일에 처박혀 명이 끊어지기에 앞서 날뛰여보는 마지막 발버둥이다. 이것은 말이나 경고는 더이상 필요없으며 무자비한 타격으로 소멸해버려야만 한다. 이것은 력사적인 총결산으로, 최후의 결사전으로 될것이다.

고난을 딛고 우리 손으로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 길, 불과 불이 부딪치는 대격전도 각오해야 하는 이 길은 어떤 정신으로만 끝까지 갈수 있고 어떤 인간들만이 기어이 승리할수 있는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승리하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천만심장에 불을 달아주신 원수님의 백두산호소이며 또다시 최후승리의 행군길에 나선 우리 삶의 좌표이고 전진의 기발이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우리의 귀중한 재부, 그것은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돌진하게 하는 조선의 싸우는 정신, 승리의 정신이다.

백두산칼바람엔 자기의 웨침이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혈전의 산악들에 휘몰아쳤던 그 바람, 고난의 사선천리에도 소리치며 불어쳤던 그 바람, 혁명의 3세, 4세 우리의 머리우에 오늘은 이렇게 웨치며 불길치며 타오른다.

백절불굴의 공격만을 아는 이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은 사람만이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가는 영원한 혁명투쟁의 동행자가 될수 있고 오늘과 같은 이 승리의 언덕에 또다시 설수 있다. 이 신념을 가져야만이 내 나라 강산을 그림처럼 황홀한 눈부신 땅과 바다로 일떠세울수 있다. 이 신념을 가져야만이 사회주의기관차를 떠미는 과학자천리마기수가 될수 있고 세계를 앞지르는 조선속도의 창조자가 될수 있으며 황금해의 력사를 개척하는 당정책관철의 견결한 투사가 될수 있다.

백두산총대에 백두의 칼바람신념을 재워 원쑤들에게 섬멸적죽음을 안겨야 한다. 감히 우리의 태양을 흐려놓고 우리의 심장에서 목숨과 같은 우리 당과 공화국을 지워버리려는 원쑤들의 《인권》나발과 온갖 발악은 무자비한 백두산돌풍으로 산산이 박산내여 지구밖으로 내던져야 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신 말—《오직》, 《불굴》!

하나만을 알고 곧바로만 아는 《오직》,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불굴》,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의 전우, 동지로 뭉친 이 나라 천만전사들의 일편단심이고 원수님 따라 피눈물의 바다, 비약의 령마루를 헤쳐넘으면서 단련되고 성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오직 그이밖에 모르며 우리는 그이를 따르는 길에 일편단심 백절불굴하리라. 오직 그이만을 따를 때, 하늘땅 끝까지 불변불굴의 한길을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 원수님은 3대를 이어 조선민족이 맞이한 백두산장군,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천하가 태동하듯이 백두산장군 김정은원수님께서 손들어 높이 가리키시면 광활한 누리에 승리의 서광이 밝아온다.

백두산대국은 정의의 길을 가고있다. 력사의 반동들이 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려 해도 우리는 그 어느 인민도 증명해보지 못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미래에 가닿으려 한다. 진리는 시간이 증명하는 법이다. 원쑤들이 조선은 곧 붕괴될것이라고 한 요란한 선전의 허위를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보였는가. 또다시 날뛰는 적들의 헛나발도 우리는 이제 곧 여지없이 짓부셔버릴것이다.

미국의 한 국제문제연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은 정전협정이후 미국과 대상하여 모두 승리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북에 또다시 그런 전적을 쌓을수 있는 담력과 배짱에서 제일이고 령군술이 로련한 실천가가 등장하였다. 그러니 북이 말하는 련전련승의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 분명하다.》

김정은동지는 곧 백두산대국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약동하는 힘은 김정은동지의 기상이다.

지나온 3년은 우리가 더 확고부동하게 미래에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힘을 축적하였다. 백두산혈통이 3대로 빛나게 이어지고 그 력사적위업이 실현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이 백년, 천년으로 드팀없이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이 천하제일의 령장을 모시여 이 3년간에 정치사상적위력에서 비할바없는 사상의 강군, 도덕의 강군으로 그 면모를 튼튼히 갖추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 받드는 김정은결사옹위의 우리 군대는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지략으로 무적의 타격력을 백방으로 다지였다.

세계에로 나가는 문명창조와 강성번영의 새 력량, 새 세대가 준비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리상의 세계를 배우고 그이의 손길밑에 성장하는 나날에 우리의 사고와 꿈, 창조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웅대한 설계도와 풍부한 경험이 마련되였고 이제부터 보다 활력을 띠며 모든 부문이 소리치며 일어날수 있는 충천한 힘이 갖추어졌다.

3년은 이렇듯 우리자신도 믿어지지 않을만큼 높이도 올라섰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따름이다. 새로운 조선의 첫걸음이 이러할진대 장차 어떤 무서운 미증유의 변혁을 일으키게 될것인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백두의 기상안고 또다시 용기백배 나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 시련은 비켜서고 꿈은 이루어지게 되리라. 대동강반에 곧 일어서게 될 세계적인 과학기술전당이 저앞에 보이고 청천강과 세포등판에서 울리게 될 승리의 개가가 가까이 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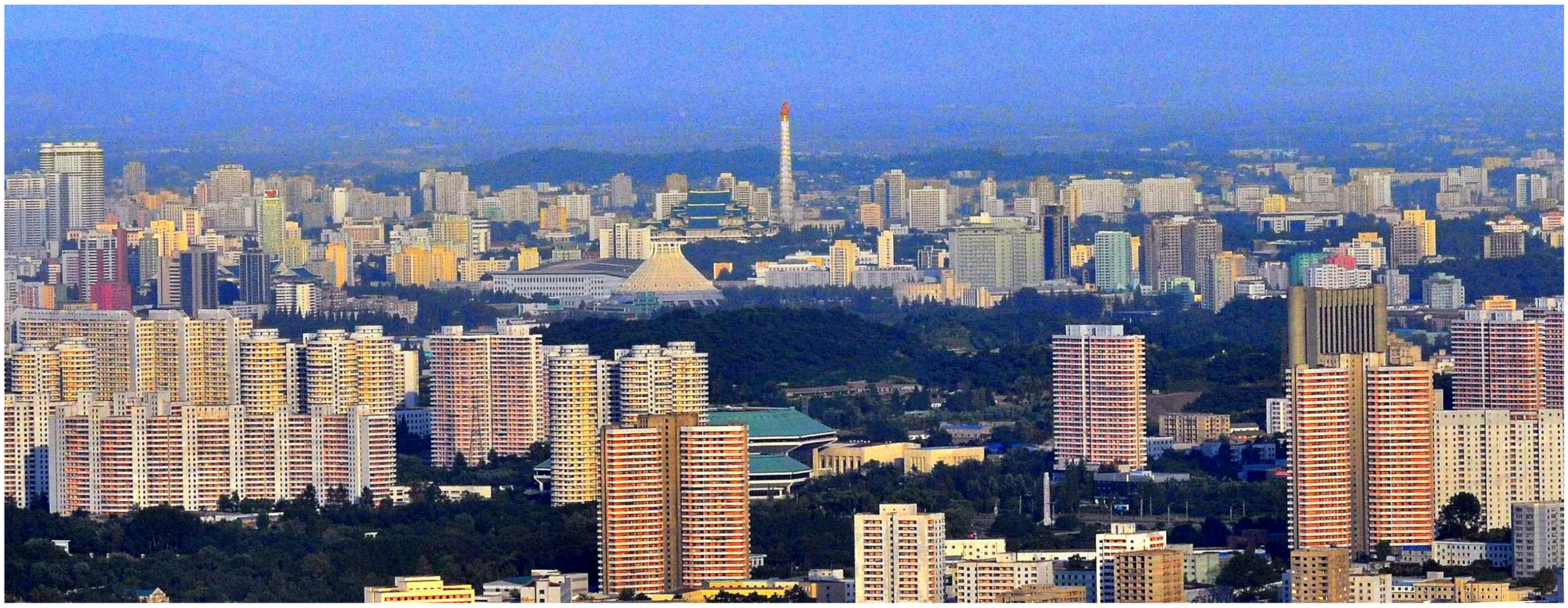
끝없이 이어질 건축의 번영기로 몇해안에 그 모양을 완전히 바꾸게 될 이 땅, 수도 평양만이 아니라 더 아름다와질 장자강의 불야경과 원산지구의 관광명소들, 이렇게 조국은 황홀한 선경으로 새 그림을 그리게 되고 동해의 황금해가 서해로 뻗쳐 물고기가 남아돌아가는 나라가 될 래일이 선명히 보인다. 교육에서의 일대 혁명과 더불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실현되고 체육강국의 열풍이 계속 줄기차게 불어쳐 올림픽시상대에서의 조선의 놀라운 금메달획득과 국제체육경기들마다에서 세상사람들을 계속 놀래우게 될 조선의 체육신화가 보인다. 제국주의원쑤들이 백두산대국앞에 무릎을 꿇고 삼천리강토에 김정은장군만세소리가 메아리칠 최후승리의 그날이 또 저앞에 있다.

대를 이어 백두산장군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위대한 김정은조선, 원수님의 두리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억척의 일편단심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군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승리와 미래는 영원히 우리 인민의것, 백두산대국이여, 더 눈부신 영광을 맞이하라, 더 위대한 승리를 맞이하라,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라.

위대한 김정은백두산대국이여, 억만년 부흥강대하라!

동태관, 박옥경, 한충혁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너무도 뜻밖의 비보에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3돐기의 년륜을 새기며 또다시 찾아온 12월의 이 시각 어버이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자주통일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가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마음은 지금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달려가고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자주통일의 성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철석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를 담아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언제나 따사로운 태양의 모습으로 겨레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력사의 새시대를 진두에서 이끌어오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가슴에 안고 살며 투쟁해온 지난 3년간은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있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고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진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였습니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어버이주석님의 혁명사상이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고 당과 군대, 국가를 주석님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여 태양의 위업을 만대에 이어놓으신 불세출의 위인이시였으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이북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였습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고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대하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애국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겨레사랑은 무궁토록 빛을 뿌리고 조국위해 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해주시고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수 있게 최상의 경지에서 꾸려주시였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여 태양영생의 력사가 자자손손 맥맥히 흐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불같은 일념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민중을 받드는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근로민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전개해나가시여 이북땅우에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사상이 더욱 활짝 꽃펴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이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문명국의 위상을 떨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른것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민중적풍모를 지니시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출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무비의 담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최전연초소와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멸적의 기상을 안겨주시며 날로 횡포해지는 미국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이남민중은 천하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그대로 뵙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주고계십니다.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온 겨레에게 머지않아 밝아올 자주통일의 새 아침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있으며 우리들에게 통일혁명에로 일로매진할 불퇴전의 용맹과 새로운 투지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지금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순결무구한 충정과 도덕의리,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자긍심을 안고 원수님의 령도를 세상끝까지 받들어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며 필승의 기개에 넘쳐 살며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반제민전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고 따르는 불패의 전위대오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며 각계 민중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깊이 심어주어 온 남녘땅에 태양경모의 열풍이 뜨겁게 휘몰아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옹호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며 북침전쟁도발과 동족대결책동, 악랄하고 비렬한 반공화국《인권》모략공세에 매달리는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중적항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기어이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놓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찬연한 빛발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계시기에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자주통일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열원을 담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완성과 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3(2014)년 12월 17일 서 울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우리의 곁을 떠나시여 일본땅 방방곡곡 동포사는 곳마다 크나큰 비애에 잠기였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3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국인민들과 함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버이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에 이룩하신 업적이 얼마나 거창하며 위대한가를 걸음마다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장군님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귀한 한생을 바치시여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닦으시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주체조선, 강위력한 선군조선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영원히 이어지는 태양조선으로 빛내이신 조선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십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호히 맞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선군정치의 기적입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건설하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사나운 눈보라도,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숭고한 애족애민으로 온 겨레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이끄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으며 인류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여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고 천재적인 예지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식솔로 포근히 안아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자고 선포하시면서 총련도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개척하여 희망의 2012년에 함께 가자고 크나큰 믿음을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총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해주신 운명의 수호자,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십니다.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장군님의 유훈대로 교시관철에로 전진하여온 지난 3년간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도 새로운 전성기가 반드시 열린다는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한 영광과 승리의 나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에 돌려주시였던 사랑 그대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주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자신의 귀중한 한식솔이라고 하시며 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강령적가르치심과 축하문, 축전, 친필서한을 거듭 안겨주시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와 전략적목표, 기본과업과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며 총련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변함없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것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받아안은 더없는 영광과 행복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내며 총련지부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결정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새 세대들속에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며 총련의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 그들이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튼튼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을 고수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며 동포상공인들이 애족애국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가슴을 불태워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대외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벌려나가겠습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피눈물로 다진 3년전 12월의 맹세를 항상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앞날을 마련해주는 참된 복무자, 심부름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2015년에 맞이하는 총련결성 60돐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총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받드는 강위력한 해외조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력사적인 계기로 장식할 뜨거운 열정을 안고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에로의 비약의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운동》을 전조직적으로 힘차게 벌려 뚜렷한 사업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절절한 념원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3(2014)년 12월 17일 일본 도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과 현대그룹회장이 화환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대중평화쎈터 리사장 리희호녀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화환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보내여온 화환들을 16일 개성에서 박지원 김대중평화쎈터 부리사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주식회사 사장이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회장이 드리는 조의문들이 전달되였다.

석상들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회장에게 보내시는 사의의 말씀을 원동연부위원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경의 표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12월의 그날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서 세월의 찬눈비를 다 맞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결의 길마저 눈보라속에 가시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솜옷과 머리수건까지 벗어 연도에 펴드리고 피눈물을 뿌리며 령구차를 따라서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더더욱 강렬해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그리움의 대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6일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혁명의 대전당,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태양의 성지를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그들은 한평생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주시고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전국의 여러 도들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섰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직 조국과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한세기에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락원의 10명당원들과 협동벌의 농업근로자들, 자강땅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훈장보존실에서 그들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삼가 올린 훈장들과 메달, 명예칭호들을 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섰다.

사랑하는 나의 동지, 전사들이 왔다고 기뻐하시며 금시라도 일어나시여 한품에 안아주실것만 같은 어버이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참가자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가장 준엄한 시대의 폭풍우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생을 다 겪으시며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선군혁명의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의 선군령장의 사생결단의 피어린 력사가 어려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철령의 험한 령길, 판문점의 새벽길과 초도의 풍랑사나운 배길이 가슴뜨겁게 어려와 눈굽을 적시였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조국의 천만년부강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다가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신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각계층 근로자들은 뜨거운 오열을 터뜨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만복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가꾸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인민의 행복이 더욱 커가고 선군조선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훈장보존실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재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보여주는 울음홀에서 그들은 눈보라치던 영결의 그날 어버이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갈것을 심장으로 다짐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천만의 심장을 울리며 하많은 사연들을 전하는 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앞에서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철의 의지를 다시금 가다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여나갈 불타는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조선녀성의 애국적기개를 힘있게 떨쳐나가자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맹세모임이 16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녀맹위원장 김은희, 대동강구역녀맹위원장 장미화, 만경대구역 광복2동 녀맹원 김광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지나온 3년간은 천만군민이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르며 장군님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여온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장 수십성상 주체의 찬란한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백두산대국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신 모든것이 조국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억척의 성새, 방패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녀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도덕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전력, 석탄, 농업부문 등 중요전선을 돕기 위한 활동과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조선녀성의 애국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잘 꾸리고 자녀들을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감,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우며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실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꽃송이마다에 담아간다. — 서성구역김일성화김정일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

어버이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영원히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맹세와 실천의 3년은 끝없이 이어지리라

꽃송이들이 정히 놓여진다.

오르고오르는 사람들의 물결과 더불어 천만송이 꽃들이 삼가 놓이고 또 놓여 눈내리는 12월의 만수대언덕우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한마디한마디가 가슴을 찢는 비보에 접하고 하늘땅이 떠나가도록 목놓아울던 우리 인민이 그이의 따뜻한 품, 자애로운 손길, 환하신 미소가 못 견디게 그리워 날마다 찾고 또 찾아 어느새 3년이 되였다.

장군님 없으면 조국도 없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던 인민이 오늘은 세번째로 맞는 12월 17일에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3년을 우리는 만수대언덕에서 돌이켜본다.

조국이 세계를 향해 솟구쳐올랐고 군대와 인민이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그 3년.

우리의 첫 실용위성이 우주로 날아오르고 이 땅이 CNC화열풍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졌다. 건설의 대번영기와 함께 황홀한 새 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희한한 물놀이, 스키운동, 승마운동이라는 문명의 대명사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울려나오는 속에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날로 높아가고있다.

조선은 과연 무슨 힘으로 불사신마냥 일떠섰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운 저희들이 국제경기에서 또다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 조국의 장한 딸로 키워주신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더 큰 경기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탁구선수 김정동무가 만수대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아뢰인 충정의 보고였다.

어찌 그뿐이랴.

여기 만수대언덕에서는 최첨단돌파전의 자랑찬 승전소식안고 달려온 과학자, 기술자들의 목소리도 들을수 있으며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다음해에는 보다 큰 증산성과를 이룩하겠다고 결의다지는 룡강군의 한 광산로동자의 모습도 볼수 있다. 온 학급이 프로그람등록증소유자가 된 미래의 1번수들인 금성제1중학교 학생들도,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자매도의 분교교원도,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지배인도 만나볼수 있다.

그들속에는 날바다의 꺼질줄 모르는 충정의 불빛이 되리라 마음다지는 서해의 등대원과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이 언덕에서 목숨이 지는 순간까지 원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결의다지는 자강도 고풍군 월명리의 정세원아바이도 있고 가정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대원수님들께 아뢰고싶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 하많은 사람들과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깊고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만수대언덕이다. 그 36개월, 1 090여일동안 끝없이 덧놓이던 꽃송이들, 오늘까지 큰 산을 이루고도 남을만큼 쌓이고 또 쌓이는 그 열렬한 충정의 꽃들마다에 간직되여있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고이 간직하고있는 만수대언덕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들꽃중대를 생생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또 사리원시 립석고급중학교 소년단원들의 지성이 어린 꽃묶음들이 평양으로 오는 길손들의 손에 들려 여기 그리움의 언덕으로 오르고있다.

어제는 신의주의 꽃처녀가, 오늘은 사리원의 소년단원들이 이어받은 들꽃중대 녀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수대언덕에 활짝 피여나고있다.

아직은 소년단넥타이를 날리는 애어린 소년들,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장난꾸러기의 작은 손이 아니라 먼저 자란 마음으로 가꾸고 다듬어서인가 그 꽃송이들은 유난히도 향기를 짙게 풍긴다.

《…한평생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마음쓰시던 어버이장군님을 꽃향기속에 모시고싶어 우리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가꾼 류달리 향기그윽한 꽃송이들을 안고왔습니다.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어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은 류다른 꽃을 마련한 사동구역 송신2동에 사는 한 주민의 가정에서만 안아볼수 있는것이 아니다.

불비속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 전쟁로병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이 대를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마음담아 삼가 드리는 꽃바구니들, 초소의 병사들이 어버이장군님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고지의 아름다운 꽃들로 소담하게 엮어 보내온 꽃다발들, 만수대언덕의 그 모든 크고작은 꽃송이들마다에 한결같이 어려있다.

이렇게 만수대언덕과 이어진 초소들과 공장들, 기관, 기업소들과 교정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그대로 내 조국의 지도가 될것이다.

그렇다. 만수대언덕, 정녕 여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모두가 오르는 곳이다. 세계를 굽어볼 야심과 배짱, 조국의 재부를 더 많이 늘여갈 각오, 혁명초소를 끝까지 지켜갈 신념을 벼리고 키우는 성스러운 곳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언덕에서 깨끗한 량심을 터놓고 인생을 총화받았으며 곡절많은 인생길을 바로잡고 새로운 투쟁마당에 뛰여들었던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서 우주의 비밀과 최첨단의 패권, 세계선수권을 한손에 틀어쥘 거대한 힘을 받아안았던가.

그래서이리라. 오를 때면 모래알같이 작게만 느껴지던 자신들이 내릴 때면 이 세상 무서운것없이 앞으로만 내달릴 무한한 힘을 지니게 되는것은.

하기에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두분의 절세위인들을 여기 만수대언덕에 높이 받들어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 조선을 진두에서 억척같이 이끄시기에 이 땅에는 영원한 봄기운만이 넘쳐흐르고 사람들은 누구나 생의 희열을 가슴벅차게 맛보며 그리도 긍지에 넘쳐 승리만을 안아오고 보다 무궁한 래일을 창조하고있다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영원히 해빛같은 미소로 우리모두를 반겨맞아주시고 우리가 달성한 크고작은 성과들과 앞으로의 결의를 기쁨속에 들어주시며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만수대언덕과 더불어 맹세와 실천의 3년은 끝없이 이어질것이라고.

본사기자 한경철

아름다운 충정의 향기

하루 3시간과 3만송이의 목란꽃

담배련합기업소 로동자 김은정동무에게는 하루도 어김없는 일과가 있다. 일을 끝마친 저녁이면 동생과 마주앉아 3시간씩 목란꽃송이들을 정성껏 만드는것이다.

한시간이면 10송이, 한달이면 900송이, 한해면 일만송이…

그가 목란꽃송이를 만들기로 결심한것은 3년전이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올랐던 그는 꽃매대봉사원으로부터 목란꽃에 깃든 남다른 사연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수십년전 정방산의 깊은 곳에서 피여나던 한떨기 꽃을 기어이 찾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충정의 세계가 그대로 어려있는 조선의 국화!

숭고한 조국애가 빛발치는 이 사연많은 목란꽃을 자기의 작은 가슴에도 안아보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꽃송이를 만들었다. 해마다 12월이 오면 그의 방은 온통 목란꽃송이천지로 변하였고 그는 만송이의 꽃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달려가군 하였다.

12월과 더불어 만수대언덕에 끝없이 펼쳐지는 꽃바다속에는 이렇듯 한 평범한 로동자의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도 아름답게 비껴있다.

이국에서 날아온 한통의 편지

얼마전 모란봉구역 북새동 19인민반에 사는 박금향동무는 해외에 나가 사업하는 남편이 보내온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남편인 김명일동무의 편지에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맞게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대원수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필요되는 자료들을 구입해서 보내니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꼭 전달해줄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편지를 받은 안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즉시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아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 사연을 알게 된 일군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 어디에서 살며 일해도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뜻한 품을 언제나 잊지 못하며 더 잘 모셔갈 일념으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이 한통의 편지에도 어려있었다.

졸업반학생들이 안고온것은

태탄군 류정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의례히 평양으로 달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계시는 만수대언덕에 올라 졸업생들은 자기들의 희망도 아뢰이고 마음속결의도 다진다.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의 충정이 깃든 수많은 물자들과 정성비품들을 해당 일군들에게 넘겨주군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자기들의 마음도 합치고싶다면서…

해마다 이들이 안고오고있는 수많은 물자들과 정성비품들은 교직원들이 비경지를 찾아 여러종의 작물들을 심고 가꾸며 정성들여 만든것들이였다. 비록 크지 않아도 이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물자들과 정성비품들을 만수대언덕으로 보내고싶었다.

한점한점의 물자들과 정성비품들을 마련하며 바쳐온 교장 리종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교직원, 학생들의 소중한 땀방울, 바로 여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충정다해 길이 모셔갈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이 비껴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영원한 장군님식솔

신념의 메아리

저 하늘에 내리는 눈송이도 피눈물이 되여 언땅을 녹이던 12월의 그날로부터 벌써 세해가 흘렀다.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던 나의 눈앞에 꽃바구니들의 댕기에 새겨진 글발이 안겨왔다.

꽃바구니는 서로 달라도 거기에 드리운 댕기에 새겨진 하나의 글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은 저 글발은 여기 만수대언덕만이 아닌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끝없이 빛나고있다.

저 글발과 더불어 선군조선의 위성이 하늘을 날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으며 체육강국건설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지 않았던가.

그렇다.

저 글발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천만군민의 불같은 심장의 맹세로,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김성민

문득 나의 가슴에 무엇인가 쿵— 하고 울려주는것이 있었다. 너무도 눈에 익은 저 글발들이 새겨진 꽃바구니가 지난 세해동안 과연 얼마나 많이 진정되였을것인가.

《이 글발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그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정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강사 리호일동무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다시금 나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주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신념의 맹세를 담

지지 않는 별무리

만수대언덕의 저녁이다.

밤은 깊어가건만 그리움의 대하는 그칠줄 모른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르는 사람들, 대원수님들의 동상주변을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보람찬 위훈으로 빛내이고 달려온 일군들과 근로자들, 책가방을 어깨에 멘 소년단원들과 청년대학생들, 실로 각계층이다.

비록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한결같은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다.

하루도 번짐이 없이 동상주변관리사업을 해오고있는 국토환경보호성 산하단위 로동자 함정혁동무는 말하였다.

《지난 3년 하루와 같이 보아온 모습입니다. 인민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는 만수대언덕에 서면 우리 조국의 억센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됩니다.》

어버이를 그리는 인민의 마음이 끝없이 물결치는 곳!

만수대언덕에 서서 끝없이 흐르는 인민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밤하늘의 별무리는 날이 새면 지기마련이다. 하지만 위대한 태양을 따르며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인민의 마음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으리니 그 마음이야말로 절대로 지지 않는 충정의 별무리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현경철

한가정의 달력을 놓고

언제인가 자강도의 두메산골마을의 한 농장원의 집에서 목격한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나의 눈길은 문득 한쪽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매 날자밑에 여러가지 표식들이 새겨져있는 달력이였다.

무슨 표식인가 묻자 그는 말하였다.

《저녁마다 우리 집사람과 아들, 딸까지 네 식구가 우리 장군님께 보고올리는 심정으로 하루일을 총화하고 저렇게 달력에 하루 실적을 새겨넣군 한답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매일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올리는 심정으로!

얼마나 순결한 마음이 비낀 달력인가. 그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수수한 옷차림, 그 고장특유의 투박한 말투…

그러나 가슴속에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 간직되여있는것인가.

나에게는 이 땅에 굽이치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 그리움의 바다가 새삼스럽게 안겨왔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이 땅에 펼쳐진 그리움의 바다는 이렇듯 두메산골의 이름없는 한가정에, 매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자기의 샘줄기를 두고있는것이 아닌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세월이 갈수록 천만의 심장마다에서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분출하고있기에 이 땅은 영원히 그리움의 바다가 되여 끝없이 물결칠것이다.

허일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수도의 근로자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1 090여일을 하루와 같이

평양시국토계획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할것입니다.》

이른아침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고 그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고난 평양시국토계획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며 소장 박철남, 부문당비서 서철룡동무들만이 아닌 초급일군들인 곽금찬, 한명국, 설계원들인 리국철, 지은경, 황순선, 김상일, 김영일, 정창수, 손상현동무들을 비롯한 연구소안의 모든 일군, 설계원들이 자기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았고 마음속으로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이곳 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군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장군님을 생전에 더 잘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과 피로움속에 모대기던 그날부터 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못다바친 충정까지 다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한마음을 안고 이른아침마다 만수대언덕을 찾았다.

만수대언덕에 올라 깨끗한 량심의 결의를 다지고나면 온몸에 새 힘이 용솟아 끝없는 창조의 열정으로 날과 날을 이어온 이들이다.

바로 그래서 3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만수대언덕을 찾고 또 찾았다.

이제는 이 일과가 떼여놓을수 없는 자신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여 그것 없이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인가 잊고 사는것 같아 먼곳으로 출장을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여기에 오르고 수도를 떠나 그 어디에 가있어도 때없이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고싶은것이 이들의 심정이다.

국가적명절을 비롯한 중요계기때마다 마련하는 꽃바구니의 꽃 한송이한송이에도 절세위인들께 바치는 이들의 깨끗한 충정이 어려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위해 마련하는 관리도구 하나하나에도 누가 알아주건말건 바로 여기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 행복을 찾는 이들의 고결한 인생관이 비껴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오직 한마음안고 살며 일해나가는 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이기에 이들에게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며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불가능이나 조건타발이란 없으며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하나의 열망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정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원수님들을 더 잘 모실 때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도, 래일의 찬란한 미래도 있게 된다는것을 이곳 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의 변함없는 하루하루가 말해주고있다.

강철웅

12월의 만수대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12월의 만수대언덕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고있다.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맞아주시는것만 같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앞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아뢰이고 숨겼던 마음속괴로움도 다 터놓으며 천만군민이 끝없이 오르고오르는 만수대언덕이다. 그러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따뜻이 품어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는것만 같아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군 하는 맹세의 언덕이다.

어찌 우리 군대와 인민뿐이던가. 만수대언덕에 오르는 해외동포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외국의 벗들의 얼굴마다에도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한평생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심은 이렇듯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세상에 없는 이런 열화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에 받들려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만수대언덕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손들어 가리키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짓고 바라보시는 최후승리의 길,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할 래일을 향해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진보적인류가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위대한 태양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신 희세의 선군령장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였어도 변하지 않은것이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이다. 예나 지금이나 불변한 지정학적위치에 대해 말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도 쓰라린 추억이 있다.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외세가 몰아오는 전란속에 시달리며 망국과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겨레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반도에서 터진 청일, 로일전쟁은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약소국의 비참한 처지를 력사에 뚜렷이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정학적숙명으로 여겼다.

김일성민족의 100여년사는 수십년세월 이 땅에서 내려오던 고질적인 숙명론을 몰아내고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

진정 그러하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넘고넘으신 파란만장의 선군혁명령도사를 떠나 오늘의 민족사적사변을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

어느 정치사전에도 없는 선군이라는 이 두 글자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마련해주는 정치의 대명사로, 모든것을 변혁하고 일신시키는 새로운 시대어로 될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총대가 잔인무도한 부정의의 폭력을 제압하고 악을 징벌하는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였다.

돌이켜보자. 세계정치구도의 커다란 지각변동이라고 여론이 평한 20세기 90년대의 조미회담은 어떻게 시작되였던가.

쏘련의 붕괴로 세계의 유일한 초대국이 되였다고 으시대던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떠들어댔다. 미국주도의 패권질서, 강권질서수립을 위해 미지배층은 핵공갈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주되는 방편으로 리용된것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다.

미국은 조약을 핵우세와 핵공갈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비핵국가들의 손발을 얽어매여 그 나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았다.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위험국가》라는 딱지를 붙여 군사적으로 개입하며 폭력으로 제압하는 테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반제자주의 기수인 우리 공화국을 하루빨리 압살하여 조선반도에서 저들의 패권질서수립을 완성하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북조선의 핵무기개발의혹》이라는 허황한 창안품이 생겨나고 우리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소동이 막을 올렸다. 미국의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에 편승하여 조선을 겨냥한 제국주의세력의 군사적포위망이 형성되고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적들의 언론전, 심리모략전이 맹렬히 벌어졌다.

이것은 령토와 인구상에서나 군사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진 조미간의 대결인 동시에 우리와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이였다. 더우기는 방대한 핵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적들과의 대결이였다. 여기서의 후퇴는 곧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종말을 의미하였다.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 인류의 운명과 시대의 요구를 한몸에 지니고 나서시였다.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다. 련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기둥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폭탄선언이였다. 그리도 기세등등하게 덤벼들던 힘의 광신자들은 급소를 찔리우고 맥없이 꼬꾸라진 맹수신세가 되였다. 오랜 기간 우리의 회담제의를 거부해오던 미국은 머리를 숙이고 대화마당에 나섰다.

외국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미회담은 세계정치구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계의 정치축이 종래의 워싱톤—모스크바대결로부터 평양—워싱톤대결로 바뀌여진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치는 조미대결을 중심축으로 하여 움직이고있는것이다.》

조미고위급회담은 랭전후 세계정치축의 변화를 생동하게 반영한 시대의 거울로 되였다.

미국이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유일초대국》으로 나섰다면 조선은 유일한 사회주의보루로, 자주의 성새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런것만큼 조미회담은 세계정치의 주요모순과 대립이 압축된 두 적대국사이의 총포성없는 대결이였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자주와 지배, 정의와 강권, 평화지향과 전쟁흉계가 서로 맞부딪치는 가장 날카로운 정치투쟁, 계급투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회하고 음흉한 적두뇌진들이 고안해낸 온갖 계책들을 령활무쌍한 외교지략으로 짓부시며 조미회담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고 우리 장군님께 미국대통령이 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겠다는 전례없는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조미기본합의문은 우리 공화국이 조미대결에서 자주권을 수호한 승리의 선언문이였다.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목을 움츠렸던 《유일초대국》의 독단과 전횡을 단독으로 제압한 주체조선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의 승리로서 인류정치사에 특기할 중대사변이였다.

랭전종식후 엄혹한 난관과 시련을 겪던 세계인민들의 자주화위업을 새로운 앙양에로 끌어올리였다.

조선은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정치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두고 로씨야의 한 인사는 뉴톤의 제3법칙처럼 미국이 압력을 가할수록 조선인민은 더 굳세여지고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할수록 조선의 타격력도 더 강해지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마련하신 《조선의 정치력학》이라고 격찬하였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쑤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인담대한 기질이며 배짱이였다.

적들의 횡포무도한 위협과 공갈, 제재와 압력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경이적인 사변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신념, 강철의 담력과 배짱, 빛나는 예지가 안아온것이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핵억제력으로 대처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조치이다. 하지만 핵보유,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과거를 거슬러보아도 그렇고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핵은 바란다고 해서, 또 돈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에는 핵렬강중심의 정치구도가 세워졌다. 핵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은 이만저만 횡포한것이 아니였다.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보유선언과 핵시험에 관한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을 때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물론 다른 핵보유국들도 우리가 핵을 가지는것을 반대해나섰다.

허나 세계는 백두령장이 안아온 신화적인 기적을 목격하였다.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미국식해석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는 모순에 찬 세계정치질서에 통구멍을 낸 통쾌한 사변이였다. 우리가 핵보검을 틀어쥠으로써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병탄하고 우리 인민을 현대판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의 야망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어제날 대국들의 롱락물이 되여 제 하나의 운명도 지켜내지 못했던 조선이 전략적요충지를 틀고앉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는 강한 나라, 강대한 민족이 되였다.

중국의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떳떳하고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조선을 많은 대국들이 소홀히 할수 없는 동북아시아안정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게 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죠지타운종합대학의 한 박사는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새 세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고백하였다.

일본방위연구소 실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의 특징이 군사력과 외교교섭을 갈라서 생각한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시위하여 상대방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동시에 외교교섭을 병행하여 조선반도를 무대로 하는 국제관계를 조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신데 있다고 분석하였다.

힘의 뒤받침이 없는 외교가 결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력이 침략을 막는 물리적수단일뿐아니라 자주정치, 자주외교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라는것을 현실로 증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힘의 론리》에 맞서 백배로 다져온 우리의 강위력한 총대에 기초한 외교전으로 국제무대에서 미제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유엔성원국으로,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책임,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자주시대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우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를 경시하며 멀리하던 나라들 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던 나라들까지 미국의 일변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구속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와의 관계정상화, 관계개선에 나섰다.

우리 민족사에서 지금처럼 나라의 지위가 높아지고 대외관계가 세계적범위로 확대된적은 없었다.

선군정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이 아니라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승리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종말로 막을 내릴번 하였던 지난 세기를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빛내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보며 사회주의재건운동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 제국주의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며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군사를 중시하고 제국주의에 주동적으로 맞서 싸운다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시대적흐름이 날로 거세여지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각성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으며 세계정치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데 대해 몹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행성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복잡다단하고 풍파많은 세계정치흐름을 자주의 방향으로 로숙하게 조종하며 주도해오신 탁월한 정치원로,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력사가 자기 발전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고 인류자주위업이 승리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하기에 만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세상만물에 자양분을 주는 태양의 호칭에 담아 높이 우러러모시고 있는것이다. 국제정치외교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는 선군태양의 모습에 경건한 마음을 안고 머리숙인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힘찬 전진에서 힘을 얻으며 사회주의의 길, 세계자주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21세기는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조선의 세기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배금희

고결한 풍모에 매혹되여

우리 장군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외국의 벗들가운데는 로씨야련방 전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뿔리꼽스끼도 있었다.

주체91(2002)년 4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군절축하사절로 우리 나라에 온 대통령전권대표일행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에는 대통령전권대표와 함께 로씨야에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고있던 그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그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 축배를 삼가 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축배를 받으시고 군대에 복무하다가 희생된 그의 형을 추모하여 잔을 들자고 말씀하시였다.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여하는 대통령전권대표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크나큰 힘을 안겨주시였다.

뜨거운 정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장군님의 특출한 인간적매력과 위인적풍모에 뿔리꼽스끼와 그의 아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뿔리꼽스끼에게 있어서 주체90(2001)년에 있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시에 그이를 동행한것은 행운중의 행운이였다.

하루이틀도 아닌 20여일간 우리 장군님과 함께 5만여리의 로씨야방문로정을 렬차를 타고 달리면서 그는 다른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야전식강행군을 보게 되였고 위대한 수령,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인간미를 목격하게 되였다.

친근한 그 영상 뵈오면 뵈올수록 마음은 정에 쏠리고 우렁우렁하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온넋이 끌리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그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하기에 그는 대통령전권대표라는 무거운 중임을 안고 바삐 돌아가는 속에서도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싶어 그이의 위인상을 수록한 도서 《동방급행렬차—김정일동지와의 로씨야려행》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본사기자

위인칭송의 메아리 높이 울리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눈내리는 12월의 만수대언덕에 섰다.

온 세계가 물결쳐오는 이 언덕에서 우리는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영생의 세계를 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서면 누구나 영생의 진리를 심장으로 깨달을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깊이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것을 공인하고있습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신 그때 우리 인민들이 제일먼저 달려온 곳이 바로 만수대언덕이였다. 여기서 《수령님, 우리 장군님께 동상 하나 세워드리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다 실천하자면 아직도 중대한 과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신의 동상을 세울수는 없다고, 동상을 세우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업적을 남기는것이 중요하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해놓으시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가 그토록 위대하고 불멸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력사에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며 요란하게 선전해온 정치가들이 허다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찬양을 받은 위인은 별로 없다.

허나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은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으시며 그들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동상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시던 그날 하늘땅을 진감하며 터져오르던 환희와 흠모의 환호성은 그대로 천출위인의 영생을 기원하는 가장 뜨거운 격정의 분출이였다.

참으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덕에 올라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국가대표단들과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대표들로부터 개별적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전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이 언덕에 올랐다. 올해에만도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과 주조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대표단과 국제륙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외국의 인사들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였다. 이들과 함께 온 인류는 영생의 참뜻을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영생은 결코 사람들의 추억이나 력사기록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류의 태양에 대한 흠모의 날과 달로 흘러온 3년세월 이 행성에 더 높이 울려퍼진 위인칭송의 메아리를 들어보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나도 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이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렇다. 위인의 삶은 결코 한생으로 끝이 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신 1000여일,

정녕 이 3년은 이 지구의 수억만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참된 진리를 다시한번 똑똑히 알게 한 고귀한 나날이였다.

온 세계의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물결쳐흐르는 12월의 만수대언덕에서 우리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끝없이 설레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이어져가는 내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가.

본사기자 리철혁

천만년 칭송할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와 회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족대국상을 당하고 삼천리강토가 몸부림치던 때로부터 3년이 흘렀다. 지나온 날과 달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통일의 령수로 모셔왔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하게 한 나날이였다. 피눈물의 그해로부터 지난 3년간 이남민중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더욱 깊이 간직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그리는 추모의 물결이 경향각지에 굽이치는 이 시각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그이의 거룩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혁명생애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빛나는 력사이다. 장장 반세기이상 겨레의 가슴속에 쌓이고 맺혔던 분렬의 설음을 6.15통일시대의 봄빛으로 따스히 녹여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실 애국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생토록 야전복을 벗지 못하시고 험난한 길을 진두에서 헤치시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투철한 통일의지로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것은 국방위원장님께서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이다. 그이와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를 력사는 알지 못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인의 한생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하였다.

각계층이 모인 《민심의 광장》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국방위원장님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등 칭송의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오고있다.

절세위인에 대한 이남민중의 뜨거운 흠모의 숨결은 도시와 농어촌마을 그 어디를 가나 느낄수 있다. 직업과 사는 곳, 정견과 신앙은 서로 달라도 어버이장군님을 경모하며 영원히 따르려는것이 겨레의 순결한 마음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은 천만년 길이 칭송될것이다.

오늘 통일위업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애국애족의 령도를 펼쳐가신다.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깊이 간직하고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선군정치는 독특한 정치방식

외국의 벗들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표시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단장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의 군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도 단호히 쳐갈기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참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는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여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하시였다,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은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격정에 넘쳐 피력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일심단결의 힘과 강력한 군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를 가장 걸출한 세계정치원로, 령도의 거장으로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만민이 경모하는 친근한 어버이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지금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한 추모위원회들이 수많이 조직되였다. 지난 10월 한달동안에만도 로씨야, 수리아, 베닌, 로므니아, 뽈스까, 핀란드, 에티오피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 김정일동지추모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자기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11월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추모 이란이슬람교련합당위원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추모 네팔위원회》, 《위대한 김정일각하추모 이란위원회》, 《김정일각하추모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김정일동지추모 파키스탄위원회》, 《김정일대원수추모에꽈도르위원회》, 《김정일령도자추모 짐바브웨위원회》를 비롯한 추모조직들이 련이어 결성되였다. 추모위원회결성식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을 담아 업적토론회, 좌담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회고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각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세계 각지에서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이 련일 진행되고있다.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에서는 로작연구토론회가, 몽골전략연구소에서는 주체사상토론회가, 로므니아사회주의당 고르쥬도 위원회에서는 도서, 사진전시회가, 남아프리카, 기네, 딴마에서는 회고모임이 열린것을 비롯하여 절세의 위인에 대한 추모분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다,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우리는 그이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여러가지 추모행사들과 함께 절세위인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올해 12월 17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서거하신지 3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이날에 즈음하여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정당들은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추모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전에 조선인민의 행복과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그이는 정녕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정치대가이시였으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추억깊은 어조로 자기의 심정을 밝혔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영광을 지닌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명인들이 기록되여있지만 그이처럼 특출한 령도실력과 고결한 인간적풍모를 지니신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나는 김정일동지를 만나뵙는 과정에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장군이시면서도 무한히 소탈하고 겸허하신 그이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이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속에 영생하실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이들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류는 오늘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히 추모하는것은 자기들의 의무이며 도리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그이의 영생을 기원하고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본사기자 신경섭

ㄱ-41196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